

# “현산·지자체 못 믿어”...실종자 가족들 ‘울분’

### 붕괴 현장 상층부 수색 더디고 며칠째 회의만 책임회피 급급...“정부주도 수습팀 구성해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아파트 상층부 수색 작업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청을 구조 작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정부 주도로 수습팀을 구성해 구조와 수색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씨

(45)는 19일 오전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방패 삼아 책임을 벗어 내려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물론 광주시도 믿을 수 없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안씨는 이날 처음으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구조 과정이 복잡하다는 걸 이해하고 기다린지 9일 차에 들어섰지만

수색에 진전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들과 예비 입주민들로부터 ‘광주 서구청에 대책을 요구하자 실종자 가족들이 있어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는 서구청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핑계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또 수색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사고수습대책본부는 구체적인 수색 방법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고 매일 회의만 진행하고

다. 국토부·행안부 장관 등이 왔다가도 바뀌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크레인 해체 전 상층부 진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 뒤가 다른 행동”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색방법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도 뚜렷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비상시국임에도 정해진 근로시간에만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아파트 공사장노동자 등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진 뒤에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쏠리도록 일부러 구조를 지연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씨는 이어 “구조 당국의 말 한마디

에 일희일비하며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 정말 힘들다”며 “현산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광주시와 서구청은 시간을 끌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구조 작업에서 배제하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 실종자 자녀도 “입주민이 들어선 상황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야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움직였을 건지 의문이다”며 “5명의 실종자 모두 같은 국민이니 조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6~5	순천	-5~7	광양	-4~7
나주	-8~5	목포	-4~2	여수	-4~5

일출 07:39 일몰 17:48  
월출 19:54 월몰 09:17

장성	-7~4	흑산도	0~3
담양	-8~5	구례	-8~6
화순	-8~5	곡성	-9~6
영광	-7~2	완도	-3~5
함평	-6~4	강진	-6~5
무안	-6~2	장흥	-7~5
영암	-7~4	해남	-7~3
진도	-3~2	고흥	-6~6
신안	-5~3	보성	-8~5

목포	만조 03:17 16:04	여수	만조 10:50 22:51
	간조 08:43 21:21		간조 04:19 16:5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 상층부 수색 내주 초 본격화 전망

### 주말까지 크레인 부분 해체·외벽 보강조치 병행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남은 5명 실종자를 찾는 상층부 수색 작업이 다음주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습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부분 해체를 주말까지 완료하고, 외벽 보강 조치 등을 마친 뒤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건축구조·시공·철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본부 자문단은 세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타워크레인 부분 해체와 건물 내·외부 안정화, 구조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타워크레인 주 기둥이 현재 10~15도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27일까지 무게 추와 조종실, 기동기 팔뚝 등이 달린 상단부만 해체하면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는 없을 것으로 자문단은 보고 있다.

1,200t 규모 이동식 크레인 2대가 타워크레인 해체에 투입된다. 이동식 크레인은 1대가 해체를, 다른 1대는 작업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쇠줄 8개를 타워크레인에 걸어 아파트 옆 동 건물에 고정하는 등 지지력 보강 조치를

병행한다.

타워크레인 상단부 해체는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며, 주말 동안에는 외벽 안정성 보강이 이어진다.

특히 자문단은 중심부 콘크리트 구조물 안정성이 확인된 38층과 31층에서 수평 구조재인 보를 각각 임시로 가설해 외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조대는 건물 내부 구조물에 연결한 안전줄을 몸에 매달고 잔해를 치우거나 실종자 매물 예상 지점을 향해 접근할 계획이다.

대원들은 개인 장비, 기계 장치를 동원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어느 정도 치워낸 뒤 내시경 등으로 잔해 내부를 들여다보며 실종자를 찾을 계획이다.

자문단장을 맡은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2차 붕괴 방지가 필요하다”며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인 건물 손상부 외벽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안정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붕괴된 슬래브 위치가 모두 다르다. 한 쪽 귀퉁이는 22층까지 내려왔고, 그 반대 쪽 코너는 25층까지, 중앙부는 26~27층까지 붕괴돼 있다”며 “그렇다보니 일괄적으로 어느 층부터 진입하기는 어렵고, 양쪽 코너를 우선적으로 수색한 이후에 중앙부를 수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관계자들이 현장 옥상에서 기울어진 크레인을 철거하기 전 점검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 ‘붕괴사고’ 원인 규명 수사 확대

### 수사본부-노동청, 현산 본사 등 5곳 압수수색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가 19일 오전 서울 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당국은 현산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의

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 서구청과 설계사무실, 자재공급업체 등 4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또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와 감리 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무지보(테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이 다. /최환준 기자

## 건물 상층부 최대 41mm ‘취침’

붕괴 아파트 상층부에서 강풍의 영향으로 최대 41mm까지 흔들려 추가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외벽 등 29개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변이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계측 결과 18일 오전 9시께 38층 지점이 남쪽으로 41mm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께에는 원래 위치를 지나 북쪽으로 다시 9mm 이동했다.

다만, 23~38층이 부분적으로 붕괴한 건축물에는 약간의 변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층 건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구조 당국은 붕괴 건물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흔들림 정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 감리보고서 “공사기간에 쫓겼다”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 공사 기간에 쫓기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다.

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의 2021년 4분기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1·2단지 전체 골조 공사 마무리는 올해 2월 15일까지, 이 중 붕괴한 201동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1일 꼭대기 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28~34층에서는 창호, 소방설비 등 인테리어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 /홍승현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22 Vol.74 01

커버스토리: 김상목 김대중컨선편역사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지역특집: 1004섬 공익화 사업

한국의 명장: 한국의 매사냥

**“MICE 인프라 대폭 강화·미래 신사업 발굴 역점”** 커버스토리

시·그린 등 호남권 혁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력 2025년 제2전시장 개관 사업권 대표 정시장 우뚝내부 직원과 소통... 민·관·학·연 합심 전략적 마케팅지역인재에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특별 초대석]** 김원익 의원

사람 사는 세상 만들 ‘목포의 젊은 정치인’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및 대학병원 유치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신년기획]** 학생 선택적 자율학습 확대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디지털·민주교육 확대교학점제 확대 2025년 입학·교육회복 중점 추진

**[주목 이 사람]** 최범재 시의원

“난임치료 지름길은 체계적 치료 계획” 난임치료, 건강 보험 급여로 편입돼야 여성 나이 35세 이전 임신계획 추진

**[이달의 도서]** 한강 작 ‘작별하지 않는다’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한강 문학이 도달한 곳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

**[스포츠 & SPORTS]**

2022년은 스포츠의 해 베이징동계올림픽·항저우아시안게임·카타르월드컵

수원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한국의 명장] 매사냥 수련년 이어져온 수렵놀이 ‘매사냥’ 단순 포획 아닌 인건과 매가 함께하는 합작품유네스코 등재 됐지만, 지방 무형문화재 2명 그저

안수기의 건강백세 **밤 내거는다**

지역특집 1004섬 공익화 사업

세계꽃 피는 할망섬 ‘신안군’으로 떠나볼까

**이색카페** 양악당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수제 양갱 ‘할메일’ 취향 저격·SNS 소문만으로 전국구 맛집 정직·신뢰·친절·맛·인테리어 다섯 마리 토끼 다 잡은 비결